

송일국 "드라마 '해신'으로 집안 빛 다 청산해" 고백

등록 2026.05.22 12:25:00 | 수정 2026.05.22 14:12:19



[서울=뉴스시스] 조수정 기자 = 배우 송일국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NOL 유니플렉스에서 열린 뮤지컬 '헤이그' 프레스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2026.04.08. chocystal@newsis.com

[서울=뉴스시스] 남정현 기자 = 배우 송일국이 사극 촬영의 어려움을 고백했다.

23일 방송하는 MBN '김주하의 데이앤나잇'에서 송일국은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 준 사극을 두고 "전생애 죄가 많은 사람이 사극한다"고 의외를 발언을 한다.

그는 자신에게 연기대상을 안긴 드라마 '주몽'에 캐스팅 됐을 당시를 회상하며 "'주몽'을 하기 싫어 가족을 다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 갔었다"고 고백한다.

그는 또 다른 사극 '해신' 촬영 당시에는 극한의 추위와 하루에 900km를 왕복하는 강행군을 겪으며 체력에 대한 한계를 경험했다고 전한다.

그러면서도 "'해신'을 통해 월세방에서 쫓겨나기 직전이었던 집안의 빛을 다 청산했다"고 털어놓는다.

그는 '해신'으로 인해 광고계의 러브콜이 쏟아졌다고 부연한다.

현재 송일국은 뮤지컬 '헤이그'에 출연하고 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nam_jh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